

익산서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펼쳐진다

익산예술의전당서 6월 4일 김설진·김보람·이경은 세 안무가 작품 모은 'HIP합' 공연

익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HIP합)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김설진·김보람·이경은 세 안무가의 작품을 모은 HIP합 공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익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이 공연은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국악이 결합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모처럼 독특하고 참신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끊임없이 새로워진 현대무용에 수많은 방법론을 낳으며 영역을 확장해온 스트리트 댄스와 국악을 바탕으로 한 사운드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 장르 간 적극적인 소통을 보여 줄 것이다.

특히 공연예술계를 넘어 대중 전반에 이름을 알린 김설진·김보람·이경은 세 안무가가 총출동하며, 세계무대를 누비는 스트리트 댄서(DROP, Babyseek, GI)들과 사운드디자이너 최혜원, 밴드 집비나이 등 다양한 장르에서 주목받는 예술가들이 합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품은 각각 30분이며, 김설진 '등장인물'과



익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HIP합) 공연이 펼쳐진다.

김보람 '춤이나 춤이나'가 1부로, 이경은 '브레이킹'이 2부로 구성된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인터미션 15분이 진행된다.

공연 관람 가능 연령은 8세 이상이며 공연예매, 익산시민 할인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국악이 결합한 특별한 공연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공연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과 춤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김제시 안전개발국 부서장 대상 역사문화 가치확산 벽골제 제방 답사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대한민국 대표 생산유적 김제 벽골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25일 김제시 안전개발국 부서장(국장 포함 10인)을 대상으로 제방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는 문화재 브리핑, 박물관 디지털영상관 관람, 현존 3.8km 제방의 주요 거점인 수문과 제방을 걸으며 진행하였으며, 김제 벽골제 1,700여 년 중수축 공사와 근대 100년 용골마을까지의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 "김제 벽골제는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유산이다. 2000~2022년, 숙원이었던 미확인 수문지 수여거와 유동거가 확인되는 등 획기적 성과가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가치확산을 위해 김제시 청 산하 공무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오늘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2022년 하반기부터 문화유산에 가치확산을 위해 김제시 산하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장 3.8km 제방 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박노태 기자



'완주곳곳 상설 버스킹' 열린다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내달 3일~10월 말까지 공연

내달부터 완주 곳곳에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26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는 2022 동호회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3일 12시 삼례읍 문화마을(새참수레 앞 광장)을 시작으로 평일과 주말 10월 말까지 '완주곳곳 상설 버스킹'을 문화시설 주위 공원과 거리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설버스킹 사업은 완주생동민들의 특색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사람들이 찾고 모이는 곳마다 생활문화예술 공연을 상시적으로 연다.

공연을 여는 동호회들은 그동안 연주력 향상과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각 동호회마다 스스로 1시간 이상 공연을 진행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석주 이사장은 "상설버스킹 공연을 통해 취미활동으로 일상의 삶이 예술이 되는 가슴 뿌듯한 경험을 담아갈 바란다"며 "건강한 가정과 문화도시 완주, 완주군민의 행복을 함께 가꾸는데 여러 동호회가 큰 역할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우수한 경관사진 찾아요"

무주군 관광협의회, 7월 1일~10월 31일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무주군 관광협의회(회장 이운승)가 제2회 무주를 소재로 한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공도시 무주군의 수려한 경관과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재발견하고 우수한 경관사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 무주군 관광·문화자원을 소재로 촬영한 미발표사진(드론사진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디지털사진(3,500x2,500픽셀이상 용량 5MB)으로 JPG 또는 JPEG 파일형식이며, 웹하드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은 1인 5점 이내며, 자세한 공모전 요강은 무주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mujutour.or.kr)를 참조하면 된다.

3개 분야로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 분야는 무주군내 기존 관광지외 새로운 경관 및 참신한 관광자원을 발굴, 표현한 작품이다. 또 무주군 명소 분야는 무주군 명소인 덕유산, 구천동33경, 부남 금강변, 안성철연계곡, 태권도원, 무풍사과단지, 향로산 등이며, 문화·축제분야는 각종 명소와 반딧불축제와 조선왕조실록봉안행렬 재현 등 각종 문화·축제가 대상이다.

무주군관광협의회는 무주군의 관광 특성을 잘 표현하고 예술성과 독창성 및 창의성, 활용가치가 높은 사진을 우선 선발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개별 통지 및 무주관광협의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과 상패를 비롯해 금상 200만 원, 은상 2명 각 100만 원, 동상 5점 각 50만 원 등 39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운승 회장은 "한국 최고의 휴양 관광지인 무주의 경관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사진인을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이끄는 여성 리더 임파워먼트 워크숍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26일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료생 및 지역 사회 여성 리더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을 이끄는 여성 리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주최·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여성 중간관리자, 지역사회 여성리더, 청년 여성은 물론 특수직 공무원인 여성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약 1,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교육은 기배출된 수료생과 지역의 여성 리더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네트워크 축진을 도모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책임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여성 리더의 역할"에 대



한 정정희 센터장의 특별 강연과 퍼실리테이션 교육 전문 그룹인 (주)더조아진의 퍼실리테이터들이 진행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액션 플랜 및 자기 선언'으로 구성, 여성 리더로서 갖춰야 할 적극적인 태도와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분야별 여성 리더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각자의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성으로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벽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는 자아 성찰의 기회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